

NCC 정기보수 홍수 수급차질 “우려”

아시아, 정기보수로 기초유분 공급차질 ... 삼성·LG·현대는 완료

에틸렌을 비롯한 석유화학 기초유분 가격이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의 주요 NCC가 잇따라 시설보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심각한 공급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아시아 시장의 에틸렌, 벤젠, 부타디엔 등 기초유분 가격은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2004년 들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일본과 타이완 등의 대규모 NCC들이 7월부터 일제히 정기보수를 위해 가동을 중단하면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상승 압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석유화학기업들도 원가상승 압박을 받고 있어 플라스틱, 합성고무, 합성섬유산업에도 상당한 파장이 우려된다.

2003년 아시아 시장에서 톤당 478달러에 거래됐던 에틸렌은 2004년 상승세를 이어가 지난 주에는 845달러에 달했으며 부타디엔은 2004년 초 668달러 선에서 지난 주에는 1050달러로, 벤젠은 2004년 초 563달러에서 지난 주 828달러까지 치솟았다.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기초유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은 고유가로 인한 채산성 악화로 석유화학기업들이 가동 중단에 들어가면서 기초유분 수입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가격 강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에틸렌 생산능력 52만5000톤의 일본 Osaka Petrochemical이 7월8일부터 한달간, 43만 2000톤의 Nippon Petrochemical은 8월25일부터 한달간 정기보수에 들어갈 예정이며, 68만톤의 Idemitsu Petrochemical도 9월 한달 정도 보수일정을 잡아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1만톤의 Mitsubishi의 카시마 1공장은 한달여간의 보수를 마치고 7월4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문제가 발생해 재보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50만톤의 타이완 CPC도 정기보수로 8월 초에나 정상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FPC(90만톤) 6공장은 10월, 타이 ROC(80만톤)는 11월, 말레이시아 Titan No.2(38만톤)는 8월, 사우디 SADAF(100만톤)는 10월 초 각각 보수일정이 잡혀있는 등 아시아 지역 10여개 NCC가 기초유분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반면, 삼성Atofina, LG석유화학, 현대석유화학 등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4-5월에 이미 정기보수를 마친 상태이다.

국내기업들도 고유가 덕에 가격인상 요인이 생겼지만 플라스틱, 합성고무, 합성섬유 등을 생산하는 가공기업, 전방산업의 내수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어 가격 인상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면 기초유분 내수물량을 수출로 돌릴 수밖에 없어 자칫하면 기초유분의 내수 품귀현상까지 우려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7/08>